

# 한국형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도구 검증 -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

김영희<sup>1</sup> · 김계숙<sup>2</sup> · 김신정<sup>3</sup>

<sup>1</sup>동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2</sup>안산1대학 간호과 교수, <sup>3</sup>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Test of the Korean Parent as a Teacher (KPAAT) Inventory - Focusing on the Parents of Preschoolers -

Kim, Young Hee<sup>1</sup> · Kim, Kae Sook<sup>2</sup> · Kim, Shin-Jeong<sup>3</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Gyeongju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Ansan I College, Ansan

<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te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parent as a teacher (KPAAT) inventory for a group of parents of preschoolers. **Methods:** For this methodological study with 187 parents were recrui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04 using convenience sampl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measured level of child-rearing attitud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was assessed with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Construct validity of KPAAT inventory was analyzed using item analyses and factor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Program Version 14.0. **Results:**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for the KPAAT inventory was 0.881. For item analyses, inter-item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0.029~0.781.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0.012-0.737. Item-to-subscale correlation coefficients ranged from 0.509 to 0.817. Subscale-to-total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0.965, 0.711, respectively. Orthogonal varimax rotation of the 85 items in 16 areas of the KPAAT inventory, showed two facto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 These two factors explained 48.2% of the total variance. **Conclusion:** In the original KPAAT inventory six factors were identified through factor analysis, however, in this study only two factors were extracted. Wherea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was within an acceptable range, these results suggest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improve the validity of the KPAAT inventory.

**Key words:** Preschooler, Korean parent as a teacher (KPAAT) inventory, Reliability, Validity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가족 내에서 인간관계를 시작한다. 아동의 성장, 발달은 유전적 영향보다는 출생 후의 환경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 내에서 부모에 의한 돌봄의 환경이 강조되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Kim (1997)은 부모는 아동에게 있어서 최초의 모델이며 양육뿐 아니라 교육의 책임자라고 하였다.

**주요어:** 학령전기 아동, 한국형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도구, 신뢰도, 타당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Yo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707 Seokjang-dong, Gyeongju 780-714, Korea  
Tel: 82-54-770-2623 Fax: 82-54-770-2616 E-mail: yhkim@dongguk.ac.kr

투고일: 2009년 6월 16일 1차수정: 2009년 7월 13일 게재확정일: 2009년 7월 15일

양육이란 아동의 심신발달을 위해 부모, 가족, 친지는 물론 사회까지도 관련되어 사랑과 정성으로 아동을 돌보는 일련의 활동으로(Oh, 2000),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된다(Yoo, 2003). Kim (2002) 또한 양육행동의 개념분석을 통해 긍정적 속성으로서 애정결속, 영양지도, 교육, 돌봄, 보호, 훈육, 부모역할획득 등 7가지를 도출하였다.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는 등의 일차적 기능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신체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조건을 준비해 주는 영구적인 과업을 위임받고 있다(Bornstein & Cote, 2004). 그러므로 이를 수행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생동안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에 이르러 부모의 양육태도는 과거에 행해졌던 돌봄 위주의 양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발달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가르치는 부분, 즉 교육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자녀의 발달과 교육적 향상의 토대를 이루기 위한 교사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Jeon & Kim, 2005; Kim, 2002). 그러나 Strom과 Johnson (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언어발달 및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는 자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는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부모 자신이 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기대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먼저 지각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확인 및 지도방향을 제시하는 부모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로서의 부모(Parent As A Teacher, PAAT)'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Jeon & Kim, 2005; Strom & Johnson, 1974; Thornburg, Gray, & Ispa, 1989). 그러나 PAAT 검사도구는 미국 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언어·사회·문화적 계층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하나, PAAT 하위요인의 신뢰도 검증 시 인종에 따라 0.03-0.71의 큰 범위를 보였다(Elmqvist, 1975; Griswold, 1975; Johnson, 1975; Slaughter, 1974; Strom & Slaughter, 1978, as cited in Thornburg, Gray, & Ispa, 1989).

우리나라는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등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역할을 어머니에게 부과하였던 과거의 관점(Yun, 1999)에서 아버지 역할이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 양육태도 역시 부모 모두를

포함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은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가장 가까이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맺음으로 이루어지며 자녀의 건강과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Kim, 2002).

Chung (1987)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조사한 양육태도 측정도구들은 주로 애정-거부, 자율-통제 중심의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일방향적인 모형으로 한정되어 있고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지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느낌과 아동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기능, 태도 및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부모(Parent As A Teacher, PAAT)' 양육태도 검사도구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검사도구를 한국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도구의 질과 적절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여 한국형 부모양육태도(Korean Parent As A Teacher, KPAAT)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자가보고형 질문지는 많은 대상자에게 동시에 실시가 가능하고, 간편하며 비용효과 면에서 우수하여 면담자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야 한다(Lee & Song, 1991). Kim 등(2002)은 신뢰도 추정은 검증하고자 하는 표본에 따라 다르므로 도구 개발 시 높게 보고된 도구일지라도 다른 표본 또는 다른 모집단에서도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가진다는 보장을 못하며 타당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타당성 있음은 도구자체에 방향이 주어지기 보다는 실제로 특별한 집단을 대상으로 또는 목적을 가지고 도구 사용 시 검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각 연구 상황마다 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KPAAT 검사도구 개발 과정에서 Chung (1987)은 일개 지역의 연구대상자 191명의 부모 중 아버지는 35명 어머니는 156명으로 부모 모두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대상자 각각에 대한 구성 성비의 불균형을 보였고,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구성하는 6개 요인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각각 .65, .56, .84, .65, .68, .58로 나타나,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타당도 검증을 제안하였다. 또한 Lee (1996)도 간호학의 중요한 본질인 돌봄의 정의적 속성으로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망 속에서 과학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관심과 정성을 전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돕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음에도, 대상자가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일 경우 가장 관심을 갖는 교육측면의 양육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Chung (1987)의 KPAAT 검사도구 개발을 통한 탐색적 과정에 덧붙여 도구의 실용성을 위해서는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도구를 적용하는 확인적(confirmative) 과정의 타당화를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도구의 심리측정 속성, 즉 개념의 속성, 대상자, 신뢰도 및 타당도의 지속적인 향상이 이루어지며 이를 적용한 여러 연구 결과의 공유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 축적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에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들과 비교, 분석하여 일반화한 후 부모 양육태도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히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사로서의 양육태도 검사(KPAAT)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아동간호사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KPAAT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KPAAT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사로서의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확인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을 이용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편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 한 곳과 어린이집 한 곳에 다니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부모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부모를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곳을 방문하여 유치원장 및 관련 교사들의 구두허락하에 교사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대한 안내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맡겼으며 교사들은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학부모에게 직접 안내서와 동의서를 전달

하였다. 모든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기록되며 또한 연구에 동의했는지라도 언제든지 원할 때 연구에서 빠질 수 있음을 알렸다. 참여한 학부모는 모두 187명(모 103명, 부 84명)으로 질문지 회수율은 71.9%이었다.

표본 수와 관련하여, 최소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문항당 3명 내지 5명의 표본 수이면 요인분석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 Kim, 1996), Lee (1995)의 경우 요인구조가 확실히 예기되는 경우는 표본의 수가 작아도 된다고 하였다. Guadagnoli와 Velicer (1988)는 여러 조건에서 결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최소한 40 또는 50개의 문항까지는 이전까지 제시되었던 문항당 10배의 표본 수보다는 3배인 150의 표본 수가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 검사도구를 개발한 Chung (1987)의 표본 수는 191명이며 본 연구의 표본 수도 187명으로 비슷한 수의 표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Gorsuch (1997)에 의하면 추출된 요인에 비해 표본 수가 매우 적은 경우는 Bartlett의 구상 검정치를 이용하여 표본 수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Bartlett 구상 검정치(Bartlett's test of sphericity)는 1,117.75 ( $p=.00$ )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분석을 위해서는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1, 그리고 검정력 .80 일 때 124명의 표본 수가 필요하다(Cohen, Cohen, West, & Aiken, 2003)는 것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연구 도구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의 교사로서의 양육태도검사(KPAAT) 도구는 1974년 미국 Arizona 대학교의 Strom과 Johnson에 의해 개발된 50문항, 5개 요인의 PAAT (Parent As A Teacher) 검사도구(Chung, 1987; Strom & Johnson, 1974)를 기초로 하여 2차에 걸친 수정·보완·확충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Chung (1987)에 의해 개발되었다.

PAAT 검사도구는 부모의 교육적인 기능 또는 교사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요인들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각 하위요인은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50문항(27개의 부정문항과 23개의 긍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놀이요인; 학습의 근원으로서의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이해, 2) 교수-학습요인; 교사로서의 자신감, 3) 통제요인; 통제를 위한 부모의 요구, 4) 좌절요인;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좌절, 5) 창의성 요인; 창의성 발달을 위한 부모의 지지(Chung, 1987; Strom &

Johnson, 1974).

KPAAT 검사도구는 총 85 문항, 16 하위영역 및 6 요인의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2문항이 긍정문항, 43문항이 부정 문항이다. 득점가능 점수는 85-3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16개 하위영역 (① 질문에 대한 반응, ② 놀이에 대한 허용적 태도, ③ 통제, ④ 놀이의 통제, ⑤ 아동에 대한 기대, ⑥ 학습에 대한 이해, ⑦ 학습에 대한 지원, ⑧ 사고의 격려, ⑨ 상상놀이 기회제공, ⑩ 놀이의 지원, ⑪ 성취동기의 육성, ⑫ 훈육의 타당성, ⑬ 정의적 지원, ⑭ 고정관념, ⑮ 교육에 대한 자신감, ⑯ 제한)을 가진 6개 요인 으로 구성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총 설명력은 62.4%로 나타났고, 각 요인별 설명력은 요인 1 (학습의 성취 격려: ⑥, ⑪) 24.1%, 요인 2 (통제와 제한: ③, ⑫) 10.8%, 요인 3 (질문에 대한 반응: ①) 8.0%, 요인 4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⑤, ⑦, ⑩) 7.0%, 요인 5 (놀이의 허용: ②, ④, ⑨, ⑮) 6.5%, 요인 6 (창의성 발달의 촉진: ⑧, ⑬, ⑭, ⑯) 6.0%이었다. Chung (198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3, 요인별로는 .56-.84의 범위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Program Version 14.0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량으로 계산하였다.

둘째,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평가하였다.

셋째, 타당도는 구성타당도로,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부모의 평균연령은 아버지 36.9세(31-50세), 어머니 34.2세(22-45세)이었으며 교육정도는 아버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17.9% (15명), 대학졸업 이상 82.1% (69명)이었고 어머니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39.8% (41명), 대학졸업 이상 60.2% (62명)이었다. 종교는 부모 모두 없다(부 47.6%, 모 42.7%)와 기독교(부 29.8%, 모 33.0%)의 순이었다. 아버지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98.9% (83명)이었고, 유형별로는 사무직 53.6% (45명), 서비스직 17.9% (15명), 영업직 15.5% (13명), 전문직 13.1% (11명)이었다. 어머니는 14.6% (15명)가 직업이 있었고, 유형별로

는 서비스직 40.0% (6명), 영업직과 전문직이 각각 26.7% (4명씩), 사무직 6.7%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부모 모두 중 정도(부 67.9%, 모 65.0%)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43.7% (45명), 여아가 56.3% (58명)이었고, 형제 순위는 첫째 62.1% (64명), 둘째 35.0% (36명), 셋째 2.9% (3명)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격을 아버지는 '까다롭다' 16.7% (14명), '보통이다' 52.4% (44명), '순하다' 31.0% (26명)의 순으로 지각하였고, 어머니는 각각 20.4% (21명), 54.4% (56명), 25.2% (26명)의 순으로 지각하였다.

**신뢰도 검증**

척도 내에서 각 문항 간의 평균 상관관계수에 기초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검사함으로써 신뢰도를 측정(Lee et al., 1998)하였다.

**내적 일관성**

KPAAT 검사도구의 총 평균점수는 241.09 (SD=±16.83)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는 .60 이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Chung & Choi, 1997),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는 .88로 나타났다. 요인별 평균점수는 요인 1이 196.01 (SD=±14.57), 요인 2가 45.08 (SD=±4.01)이었고,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는 요인 1이 .883으로 내적 일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 2가 .626으로 나타났다(Table 1).

**구성타당도 검증**

측정대상의 속성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문항 분석**

문항분석은 척도의 각 문항을 전체 문항과 연관시켜 그 상관 계수를 측정함으로써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문항 간 상관분석(inter-item correlations), 교정된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of Korean Parent as a Teacher (KPAAT) Inventory (N=187)

Factors	Number of subscales	Number Possible	range	Mean (SD)	Cronbach's alpha
KPAAT total	16	85	85-340	241.09 (±16.83)	.881
Positive child-rearing attitude	12	68	68-272	196.01 (±14.57)	.883
Negative child-rearing attitude	4	17	17-68	45.08 (±4.01)	.626

문항-전체 상관관계 분석(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nalysis), 문항-하위척도 상관관계 분석(item-to-subscale correlation analysis), 하위척도-전체 상관관계 분석(subscale-to-tot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문항 간 상관분석(inter-item correlations)

하위영역 간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의 범위는 -0.029에서 0.781 사이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20 미만인 문항의 경우 해당되는 문항은 각 척도 내에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검사도구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고, 반면 0.80 이상인 경우 불필요하게 중복 측정된 문항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어 다중 공선성(multi 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한다(Ferretich, 1991; Pallant, 2005). 특히 하위영역 '통제' (문항번호 3, 52, 56, 66, 71)의 경우 다른 하위영역 '놀이의 통제' (문항번호 25, 26, 36, 59, 76)와의 상관계수 0.236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다른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에서 -0.024-0.148의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관계 분석(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nalysis)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도구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대상자 수가 적을 경우 특히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Lim, & Park, 1998). 또한 이 분석을 통해 개별 문항에 관한 점수와 잔존하는 나머지 항목의 전체 점수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알 수 있다(Chung & Choi, 1997). 본 연

구에서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낸 하위영역 '통제'의 경우, 교정된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0.012로 낮게 나타나 제거될 경우 Cronbach's  $\alpha$  값이 .893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하위영역의 경우는 0.440-0.737로 하위영역 간 높은 동질성을 보였다(Table 2).

문항-하위척도 상관관계 분석(item-to-subscale correlation analysis)

각 요인에 포함되는 하위영역이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KPAAT 검사도구의 요인 1에 대한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계수는 0.54-0.82, 요인 2는 0.51-0.76의 범위를 나타내 하위영역들이 각 관련요인으로 잘 묶여졌음을 알 수 있다.

하위척도-전체 상관관계 분석(subscale-to-total correlation analysis)

KPAAT 검사도구의 요인-전체 상관관계는 요인 1의 경우 0.965, 요인 2는 0.711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

요인분석모형의 적합성

요인분석에서는 Kaiser-Meyer-Oklin (KMO) 값이 0.90이면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선정으로 상당히 좋고, 0.70 이상이면 적당한 것으로, 0.60 이상이면 평범한 것으로, 0.50 이상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0.50 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Chung & Choi, 1997; Pallant, 2005; Tabachnick & Fidell, 2001; Thato, Hanna, & Rodcumdee, 2005).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KMO 측도와 Bartlett의 구상 검정치(Bartlett's test of sphericity)를 검사한 결과 KMO 값은 0.905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상 검정치는 1,117.751 ( $p < .001$ )로 상관 행렬에서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가 좋은 것으로 밝혀져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2.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of Subscales (N=187)

No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 Response to question	.620	.870
2 Permissive attitude of play	.595	.871
3 Control	.012	.893
4 Control of play	.544	.873
5 Expectation about child	.579	.872
6 Understanding about learning	.585	.872
7 Support of learning	.635	.870
8 Encouragement of thinking	.498	.875
9 Provision of imaginary play opportunities	.440	.877
10 Support of play	.477	.876
11 Encouragement of accomplishment motivation	.619	.871
12 Propriety of child-rearing	.484	.875
13 Affectional support	.737	.865
14 Fixed idea	.480	.876
15 Confidence about education	.642	.869
16 Limitation	.535	.873

Table 3. A Result of KMO &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N=187)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0.905	Approx. $\chi^2$	1,117.751
	df	120
	p	<.001

KMO=Kaiser-Meyer-Oklin.

1차 요인회전

잠재요인 또는 일련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직교 베리맥스 회전(orthogonal varimax rotation)을 시행하였으며 요인추출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였다: 1) Kaiser 기준으로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 2) Catell's scree test 검사, 3) 0.35 이상의 요인 적재량, 4) 요인당 최소 5% 이상의 설명력(Chung & Choi, 1997; Pallant, 2005).

1차 회전 시행 결과 KPAAT 검사도구의 16개 하위영역을 모두 포함한 고유값 1.0 이상의 3개 요인(6.19, 1.53, 1.21)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1차 요인분석에서 제1요인이 38.66%의 설명력을 보이고 나머지 2개 요인(각각 9.56%, 7.54%)에서는 0.35 이상의 요인 적재량을 보이는 하위영역이 적고, 또한 각 요인에 해당되는 하위영역 간 일관성이 부족하여 관련성을 찾기가 곤란하였다. 더욱이 최소 5% 이상의 설명력을 가지면서 고유값의 크기가 큰 순으로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인 스크리 도표(scree plot) 상에서도 2개의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였다.

2차 요인회전 및 요인 명명

1차 요인회전 후 요인의 수를 2개로 제한하여 2차 직교 베리맥스 회전(orthogonal varimax rotation)을 시행하여 요인 적재량 0.35 이상의 2개 요인으로 좁혀졌고,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동일한 요인으로 묶어서 요인 적재량의 형태에 따라 요인을 설명하였다(Table 4).

요인 1은 '정의적 지원', '학습에 대한 지원', '성취동기의 육성', '질문에 대한 반응', '교육에 대한 자신감', '놀이의 지원', '아동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이해', '사고의 격려', '훈육의 타당성', '놀이에 대한 허용적 태도' 등 요인 적재량 0.418~0.786 범위인 12개의 하위영역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요인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의 고유값은 5.051로 전체 변량에 대해 31.571%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2는 '고정관념', '놀이의 통제', '제한', '통제' 등, 요인 적재량 0.547~0.748 범위의 4개 하위영역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요인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의 고유값은 2.664로 전체 변량에 대해 16.651%의 설명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Chung (1987)이 개발한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 검사도구(KPAAT)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확인하기 위해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 분석결과, 요인 1의 Cronbach's  $\alpha$ 는 .883, 요인 2의 Cronbach's  $\alpha$ 는 .626, 그리고 검사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881로 나타나 도구의 하위영역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PAAT 검사도구를 6개 요인으로 분석하여 개발한 Chung (1987)은 각 요인의 Cronbach's  $\alpha$ 에 대해 요인 1은 .65, 요인 2는 .56, 요인 3은 .84, 요인 4는 .65, 요인 5는 .68, 요인 6은 .58이라고 보고했으며 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93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를 비교해볼 때 개발 당시 추출된 6개 요인의 경우보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2개의 요인으로 분리되었을 때 도구 전체의 Cronbach's  $\alpha$  값이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Pallant (2005)에 따르면 Cronbach's  $\alpha$ 가 .90 이상인 경우 임상적 의사결정에 적합하며, Cronbach's  $\alpha$ 가 .70이면 임상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Kim 등(2002)도 잘 개발된 측정도구에 대해 .80의 신뢰도는 최저의 받아들일만한 계수로, 그리고 새로이 개발된 도구의 경우 .70의 신뢰도는 허용할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KPAAT 검사도구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한 문항분석 결과를 보면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하위영역 '통제' (③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하여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이가 잘 해내기 바란다, 아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한다, 아이의 어떤 일이든 반드시 나에게 물어본 뒤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의 경우 다른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고(-0.024~0.236), 문항-전체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교정된 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았으며( $r = .012$ ), 이들이 요인 2에서 보여주는 요인 적재량도 다른 하위영역의 적재량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나 대상자들의 반응이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항-하위척도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각각의 요인과 여기에 포함되는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는 요인 1의 경우 0.54~0.82의 범위를 보였고, 요인 2의 경우는 0.51~0.76의 범위를 나타내어, 대부분이 0.51~0.82의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중복측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위척도-전체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요인 1은 0.965, 요인 2는 0.711로 매우 높고 안정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모두 역산이 필요한 5개의 부정 문항들로 구성된 '통제' 하위영역에 포함된 문항들은 KPAAT 검사의 의도를 잘 살리지 못하는 분별력이 적은 문항들로 드러

**Table 4.** Factor Loading, Rotated Eigenvalue, Percentage of Explained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of Total Variance Explained for Korean Parent as a Teacher (KPAAT) Inventory<sup>a</sup>

Subscales/items	Factor 1	Factor 2
13. Affectional support	.786	
13. I get irritated when my child feels fear and anxiety about a simple issue.*		
17. I always know and respond accurately to what my child wants and feels.		
47. I ignore my child when he/she boasts or holds his/her head high.*		
53. It is OK for my child keep secrets from me.		
69. I have more often felt distressed or troubled than feel joy during child rearing.*		
72. When my child seems sad or troubled, I always ask him/her what is wrong and let him/her calm down.		
77. I often my hug my child and express my love to him/her.		
7. Support of learning	.757	
10. I do not notice when my child learns new things.*		
32. I always guide my child with interest when he/she wants to learn new things.		
44. I blame my child when he does not learn eagerly.*		
63. I can teach my child appropriately at home.		
74. I observe my child's behavior attentively and guide him/her appropriately.		
80. I do not disturb my child if he/she is concentrating on his/her play or on his/her own ideas.		
85. When I buy toys for my child, I consider education after I consider our economic situation.		
11. Encouragement of accomplishment motivation	.735	
6. I am sure my child will become the person that my family members want him/her to be.*		
11. I actively encourage my child to try any new experience even if it involves some danger or anxiety.		
23. I always allow my child to explore his/her surroundings freely.		
33. I can talk to others about my child's strong and weak points accurately.		
42. I give my child various opportunities to make his/her own decisions.		
50. I always praise my child when he/she accomplishes something on his/her own.		
79. I encourage my child to finish the activities that he/she starts even if it is difficult.		
82. When my child does something or studying without my prompting, I praise him/her.		
1. Response to question	.734	
1. When the child asks me something, I feel tired.*		
19. It is upsetting when my child asks me something when I am busy.*		
29. I give the child time or ask for the child's thought rather than giving him/her the correct answer.		
48. I feel upset when I cannot answer my child's questions.*		
15. Confidence about education	.704	
4. I want to play with my child.		
49. When I teach my child, I often use toys.		
58. I often refer to other people because I do not have confidence in my child rearing abilities.*		
62. I worry if my child is developmentally delayed when my child is doing not well.*		
70. I feel uneasy when I behave differently from other people.*		
73. When I teach my child new things, I explain everything carefully.		
75. I know what to teach to my child and have an age-appropriate plan.		
10. Support of play	.694	
8. I get irritated when my child insists that I look at what he/she is playing with.*		
9. It is usually taxing to play with my child.*		
21. I can choose and buy toys that are appropriate for my child.		
22. I do not know what to say to my child about his/her activities when he/she is playing.*		
27. I think my child's behavior will improve if I play with him/her.		
37. I think it is not important to praise the child during play.		
43. It is difficult to pay attention to my child's activities when I play with him/her.*		
5. Expectation about child	.614	
28. When my child is not doing something well, I do it for him/her.*		
45. For some problems regarding my child, I consult the child and make a decision with him/her.		
51. I usually tell to my child to make decisions by himself/herself.		
57. I feel easy when I take care of my child's everything because he/she is too young.*		
6. Understanding about learning	.533	
5. I think there are many things for children to learn before they enter elementary school.		
38. Children see and learn more from their surroundings than from listening.		
54. Children learn from playing with their friends like they learn from kindergarten or school.		

(Continued to the next page)

Table 4.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ge) Factor Loading, Rotated eigenvalue, Percentage of explained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of total variance explained for Korean Parent As A Teacher (KPAAT) Inventory<sup>a</sup>

Subscales/items	Factor 1	Factor 2
55. When I play with my child whenever he/she wants, he can not learn more.*		
60. When I see my child playing, I think it is a waste of time.*		
64. I let my child play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 think playing is learning.		
8. Encouragement of thinking	.489	
12. I advise my child to think more when he says he does not know something.		
34. I talk to my child like other children when he tries to solve problems using inappropriate methods.*		
61. I answer accurately when my child asks a question that can be answered with 'yes' or 'no'.*		
12. Propriety of child-rearing	.468	
39. Because children have short memory spans, when I am scolding my child, I do not need to explain the reason that I am scolding him/her.*		
78. When my child makes a mistake, it is effective to scold him rather all together at once than each time.*		
83. I intentionally do not give my child everything that he/she wants.		
84. I think most wrong behaviors originate from the parents.		
9. Provision of imaginary play opportunities	.434	
7. Children often enjoy creating imaginary stories.		
16. It is good for children to play with many people and friends.		
24. It seems silly when my child role plays (ex: mother, father) with toys.*		
31. When playing with children, games with rules are better than play that involves pretending (ex: hospital play).*		
40. I do not mind if my child plays alone.		
67. I often collect pretty bottles or containers that can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for my child to play with.		
2. Permissive attitude of play	.418	
2. It is OK that children make noise when they are playing.		
30. I think it is a problem if the child gets his/her clothes or body dirty during play.		
35. When I am playing with my child, it is not a problem if he interrupts my speaking or behavior.		
41. It is OK that toys are scattered about when my child is playing.		
46. I don't want my child to play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14. Fixed idea		.748
18. It is OK for a child to play with many types of toys regardless of his/her gender.		
65. I always tell my children to behave like his/her elder or younger sibling.*		
68. I immediately correct when my child he/she is not behaving like other children of the same gender.*		
4. Control of play		.676
25. I punish children when they fight during play.*		
26. I think my child must follow my control and guidance when he plays with me.*		
36. When my child gets angry at friends who play with him, I must make him stop playing.*		
59. It is better for my child to play outdoors than indoors.*		
76. I like children who read storybooks quietly rather than the children who run and scatter things about.*		
16. Limitation		.594
14. I do not let my child talk about issues that are not appropriate topics for children.*		
15. If I play with my child more, his manners will become worse.*		
20. I think children should not chatter noisily when adults are talking.*		
81. I think it is not good for a child to criticize something regardless of the reason.*		
3. Control		.547
3. Rigid rules are necessary to rear a child properly.*		
52. Children must put toys in order before going to bed.*		
56. I want my child to grow up well even if it is difficult.*		
66. Parents must know everything that their children do.*		
71. I want my child check with me before he/she does anything alone.*		
Rotated eigenvalue	5.051	2.664
Percentage of explained variance	31.571	16.651
Cumulative percentage of total variance explained	31.571	48.222

Extraction Method=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sup>a</sup>Rotation converged in 3 iteration; \*Negative item.

났으므로 추후연구에서 문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셋째, 요인확인을 위한 주성분 분석결과 총 48.22%의 설명력을 가진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여기에는 KPAAT 검사도구 개



발자인 Chung (1987)의 결과인 6개 요인보다 적어져 단순화되었으며 개발자가 제시했던 16개의 하위영역이 모두 포함되었다.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로 명명된 요인 1은 31.57%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1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을 요인 적재량 크기순으로 보면, '정의적 지원', '학습에 대한 지원', '성취동기의 육성', '질문에 대한 반응', '교육에 대한 자신감', '놀이의 지원', '아동에 대한 기대', '학습에 대한 이해', '사고의 격려', '훈육의 타당성', '상상놀이 기회제공', '놀이에 대한 허용적 태도' 등이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들이 추측하고 질문하며 가상놀이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학습의 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지원하며 아동의 발달단계에 일치하는 기대를 보이고 가정에서 정의적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등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부모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Chung, 1987; Jeon & Kim, 2005; Strom & Johnson, 1974)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로 명명된 요인 2는 16.65%의 설명력을 보이며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고정관념', '놀이의 통제', '제한', '통제'가 포함된다. 지나치게 아동의 행동에 제한과 통제를 가하며 아동을 지배하려는 경우,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신이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Chung, 1987; Jeon & Kim, 2005; Strom & Johnson, 1974) 아동의 창의성을 파괴하고 의존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등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개념화하기는 어려우나 거부와 수용/통제와 자율(Lim, 2007), 온정/통제(Jeon & Kim, 2005) 또는 지지적/거부적(Min & Yoo, 1999)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음을 기술하고 있으며, Park과 Lee (1990)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7개의 요인(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결과는 Bornstein과 Cote (2004)가 부모의 지각은 양육행동을 동기화하고 조직하며 양육효과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양육은 다차원적이고 여러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인 2개의 요인 안에 기존의 도구개발자인 Chung (1987)의 연구결과인 16개 하위영역이 모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중 일부가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요인 1에는 Chung (1987)의 기존 요인 6개 중 5개('학업의 성취격려', '질문에 대한 반응',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놀이의 허용', '창의성 발달의 촉진')가 포함되었으나, 이 중에서 '놀이의 허용' 요인 중 '놀이의 통제' 하위영역과, '창의성 발달의 촉진' 요인의 '고정관념' 하위영역이 본 연구에서는 요인 2로 이동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인 2에는 Chung (1987)의 기존 요인 1개('통제와 제한')와 일부 다른 요인('놀이의 허용', '창의성 발달의 촉진')의 하위영역 2개('놀이의 통제'와 '고정관념')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장난감과 놀이장소를 선택해주며 아동의 의사결정에 통제를 가하거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등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도이므로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인 요인 2로 이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 내 하위영역의 이동은 Chung (1987)의 6개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2개의 큰 요인으로 재편되면서 각각의 요인 내에 부정문항으로 포함되었던 하위영역들이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이상과 같이 검사도구의 신뢰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타당도 측면에서 추출된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Ha, Hong과 Yoo (2005)는 요인분석 후 나타나는 차원이나 요인의 모형은 실시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경우, 연구대상이 일개 지역의 학령전기 아동 부모들로 국한되어 연구 결과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Kim 등(2002)은 간호연구에서 사용되는 많은 도구들은 다른 학문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간호학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측정은 중요할 뿐더러 어떤 면에서 볼 때 타당화의 과정은 끝이 없는 과정이며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도구가 측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구의 타당도를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후속적으로 계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실무측면에서 양방향성의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부모의 경험과 아동행동에 대한 교사로서의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바람직한 부모역할획득을 돕는 부모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전 진단과 사후 평가 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양육행동이라는 개념의 여러 속성 중 구체적인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반응결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교육측면의 간호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형 부모 양육태도(KPAAT) 검사도구를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 한 곳과 어린이집 한 곳에 다니는 학령전기 아동 부모 260명이었으며 편의 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한 부모는 모두 187명(모 103명, 부 84명)으로 질문지 회수율은 71.9%이었고 회수된 자료는 SPSS Program Version 1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평가하였고 구성타당도는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검증은 총 85문항에 대해 Cronbach's  $\alpha = .881$ 로 나타났다.

둘째, 구성타당도 검증은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문항분석 시 문항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 하위영역 '통제'의 경우 다른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고(-0.024-0.236), 문항-전체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교정된 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 $r = .012$ ), 추후연구에서 이 하위영역에 포함된 문항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요인확인을 위한 주성분 분석결과 총 48.22%의 설명력을 가진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된 한국형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반복 검증하였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과 부모 자신이 본인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교사로서의 교육적인 기능과 역할 가능성을 분류하여 진단할 수 있으며 또한 부모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원 하나하나를 각각의 하위검사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계층과 지역에 따른 다수의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문항과 절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한 적합한 문항 선정과 수정 및 보완과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Bornstein, M. C., & Cote, L. R. (2004). Mother's parenting cognitions in cultures of origin, acculturating cultures, and cultures of destination. *Child Development, 75*, 221-235.
- Chung, C. Y., & Choi, E. G. (1997).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Publishing Co.
- Chung, K. S. (1987). A study on development of Korean parent as a teacher tes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7*, 41-61.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Lawrence Erlbaum.
- Ferketich, S. (1991). Aspects of item analysi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4*, 165-168.
- Gorsuch, R. L. (199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ts role in item analysis. *Journal of Perspective Assess, 68*, 532-560.
- Guadagnoli, E., & Velicer, W. F. (1988). Relation of sample size to the stability of component patterns. *Psychological Bulletin, 103*, 265-275.
- Ha, J., Hong, S., & Yoo, S. (2005). Validation of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and childre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4*, 105-127.
- Jeon, G., & Kim, S. (2005). The effects of marital parenting stress with preschool children on parenting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43*, 35-51.
- Kim, C. J., Kim, S., Park, J. W., Yu, J. S., Chung, Y. H., & Shin, K. R. (2002). *Nursing Research*. Seoul: SooMoon Publishing Co.
- Kim, J. E. (1997). *Cognitive development of children*. Seoul: Chang-JiSa.
- Kim, S. (2002). A concept analysis of the caretaking behavior for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8*, 414-421.
- Lee, B. S. (1996). Concept analysis of car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 337-344.
- Lee, E. O., Lim N. Y., & Park, H. A. (1998). *Nursing medical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SooMoon Publishing Co.
- Lee, M., & Kim, Z. (1996). A preliminary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Dyadic Adjustment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5*, 129-140.
- Lee, S. M. (1995). *Factor analysis I*. Seoul: HakJi Publishing Co.
- Lee, Y., & Song, J.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98-113.
- Lim, S. (2007).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creative personality.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 159-170.
- Min, H. Y., & Yoo, A. J. (1999).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and coping behaviors on parent-related stress in school age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37*(9), 1-12.
- Oh, J. (2000). Concept analysis of the childcare. *Nursing Science, 12*(2), 26-36.
- Pallant, J. (2005). *SPSS survival manual* (2nd ed.).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 Park, S. Y., & Lee, S. (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28*, 141-156.

- Strom, R., & Johnson, A. (1974). The parent as a teacher. *Education, 95*, 40-43.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New York, NY: HarperCollins.
- Thato, S., Hanna, K. M., & Rodcumdee, B. (2005).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the condom self-efficacy scale with Thai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7*, 36-40.
- Thornburg, K. R., Gray, M. M., & Ispa, J. M. (1989).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Factor analyses for fathers, mothers, and teachers. *Educational Psychologic Measurement, 49*, 689-695.
- Yoo, A. J. (2003). *Theory & practice of parent education*. Seoul: Dongmoonsa.
- Yun, Y.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n's perception of child rearing and children's gender understanding, gender role knowledge, gender role pre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